

생략에서의 구제효과¹

김정석
(서강대학교)

Kim, Jeong-Seok. 2000. The saving effect of ellipsis. *Linguistics* 8-1, 113-132. This paper examines the so-called saving effect of ellipsis in minimalism, first investigated by Lasnik (1995c, 1999a). It has been controversial in the generative literature whether syntax is fundamentally derivational or representational. More precisely, a related issue is whether well-formedness conditions are imposed specifically at the particular levels of representation made available in the theory, or they are imposed internal to the derivation leading to those levels? In line with Lasnik (to appear a),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 latter question, and concludes that syntax is both derivational and representational. (Sogang University)

1. 도입

통사분석의 중점을 도출(derivation)에 둘 것인지 아니면 표상(representation)에 둘 것인지 하는 물음은 변형생성문법의 역사동안 계속된 관심을 끌어왔다. 즉 어떤 적형식 조건(well-formedness condition)이 특정 표상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특정 표상에 도달하기 전의 도출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끊임없는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Lasnik (to appear a)의 논의에 기초하여, (i) 이동의 국부적 특성과 (ii) 생략현상이 도출 대(vs.) 표상의 쟁점과 관련하여 최소주의(minimalism)에서 어떻게 조명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볼 것이다.

2. 국부성 조건(Locality Condition)

2.1 공범주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ECP) 위반의 구제

1. 이 논문은 한국언어학회 2000 겨울연구회에서 특강으로 발표된 논문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익명의 논평자들과 이종민 교수님, 손근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Chomsky (1986)는 부가어이동(adjunct movement)에 관한 국부제약(locality constraint)에 대하여 도출적(derivational) 접근법을 취한다. 그는 감마표시(v-marking)가 오직 표상에서만 적용된다는 Lasnik and Saito (1984)의 주장을 거부한다. 다음의 예문을 고려해 보자:

- (1) *How do you wonder whether John said (that) Mary solved the problem?

(1)은 도출의 첫 단계에서 (2)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 때 흔적(trace)은 감마표시가 된다.

- (2) [_{CP} [_{C'} do [_{IP} you wonder [_{CP} whether [_{IP} John said [_{CP} How [_{C'} (that) [_{IP} Mary solved the problem t]]]]]]]]]
[+v]

그러나 *How*가 최상위절의 CP의 지정어(specifier)로 이동할 때 하위인접조건(Subjacency Condition)을 위반한다. 더욱이 이 이동이 흔적을 남기게 되면 그 흔적은 공범주원리에 저촉된다. Lasnik and Saito (1984)는 어떤 원리도 중간위치(intermediate position)에 흔적을 남기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동이 반드시 흔적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흔적이 남는다 하더라도 어떤 원리도 그 흔적이 삭제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Chomsky는 80년대 후반의 MIT 강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를 제안한다:

- (3) 부가어는 완전히 표시되어야 한다. (Adjuncts must be fully represented.)

(3)은 부가어이동은 도출의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흔적을 남겨야 하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흔적들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을 따라 (2)는 다음의 단계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자:

- (4) [CP How [C' do [IP you wonder [CP whether [IP John said [CP t'
[-v]
[C' (that) [IP Mary solved the problem t]]]]]]]]]
[+v]

t'은 공범주원리를 위반하게 되어 Lasnik and Saito의 용어에 의하면 부적격 흔적(offending trace)이 된다.

논항이동(argument movement)의 경우에도 물론 변항흔적(variable trace)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어떠한 원리도 중간흔적이 존재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4)와 관련하여 (5)를 고려해 보자. (6)은 (5)의 구조인데 여기서 부적격 흔적인 t'은 삭제되었다.

- (5) ??Which problem do you wonder whether John said (that) Mary solved?
(6) [CP Which problem [C' do [IP you wonder [CP whether [IP John said [CP ~~t'~~ [C' (that) [IP Mary solved t]]]]]]]]]
[-v] [+v]

(5)에서의 장거리 이동(long-distance movement)은 완전히 문법적이지는 않지만 장거리 부가어이동에서처럼 심각한 문법성의 저하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5)가 완전히 문법적인 문장은 아니라는 사실은 Chomsky (1986)의 하위인접(Subjacency)현상에 대한 엄밀 도출이론(strict derivational theory)으로 설명된다. 이동의 한 단계가 너무 길어서 (5)의 문법성은 저하되었다. 그러나 부적격 흔적인 중간흔적이 삭제 후에 사라졌기 때문에 (6)은 공범주원리를 위반하지는 않는다. Chomsky and Lasnik (1993)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표현의 도출이 *표시된 흔적을 포함하면 그 표현은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한다. 만약 *표시된 이 흔적이 논리형태(logical form) 표상에 남아 있으면 그 표현은 공범주원리도 위반하다.

이것은 감마표시와 감마여과(v-filter, 즉 공범주원리)를 구별하려는 Lasnik and Saito의 의도를 재해석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도출적 분석에서

도 공범주원리의 성격이 전적으로 도출적이지는 않다는 점이다. 위반 가능성이 도출과정 중에 표시된다는 점에서는 도출적이다. 하지만 위반 가능성이 실제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논리형태 표상라는 점에서는 표상적이다.

실제로 부가어이동의 국부성에 대한 Lasnik and Saito의 표상적 설명과 Chomsky의 도출적 설명(부분적으로 표상적 특성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모두 현상을 잘 포착하는 듯 하나 또한 단점도 내포한다. Lasnik and Saito의 이론에서는 감마표시가 오직 표상에서만 적용된다는 가정이 필요하며, Chomsky의 이론에서는 (3)에서 제시된 부가조건이 요구된다.

Chomsky (1991)는 (또한 Chomsky and Lasnik 1993) (3)의 효과를 보다 일반화된 방법으로 포착하려 한다. Chomsky를 따라서 공범주원리를 위반한 흔적은 *표시를 갖는다고 가정하자. 또한 삭제(deletion)는 구구조(phrase structur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용(operation)중의 하나이며, 이동은 항상 흔적을 남긴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이동이 시작한 위치나 거쳐간 위치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삭제가 일어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가어연쇄(adjunct chain)의 중간흔적과 논항연쇄(argument chain)의 중간흔적이 삭제와 관련하여 비대칭성(asymmetry)을 보인다는 것이다. Chomsky는 이러한 비대칭성을 Chomsky (1991)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경제성원리(principle of economy)로 설명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관련된 개념을 먼저 살펴보자.

논리형태 표상은 완전해석원리(principle of full interpretation)를 만족시켜야 한다. 도출의 경제성(economy of derivation)이 도출중 불필요한 단계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처럼, 완전해석원리는 표상에서 불필요한 요소가 나타나지 않기를 요구한다. Chomsky의 표현을 빌리면 논리형태 표상의 모든 요소는 합법적(legitimate)이어야 한다. 그는 논리형태 표상에서 허용되는 합법적인 요소는 논항연쇄, 부가어연쇄, 어휘연쇄(lexical chain, 즉 핵연쇄), 술어연쇄(predicate chain), 운용자-변항연쇄(operator-variable chain)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α -변경(Affect- α)의 일종인 삭제는 비합법적 연쇄를 합법적 연쇄로 변환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논항위치(A-position)에서 시작한 연속 순환 비논항이동(successive cyclic A'-movement)은 위에서 열거한 연쇄가 아닌 논리형태 표상에서 적합하지 않은 연쇄를 생성하게 된다. 연쇄의 꼬리(tail)는 논항위치에 있는 반면 나머지는 비논항위치(A'-position)에 있어서 연쇄자체는 논항연쇄도 아니고 부가어연쇄도 아니다. 또한 연쇄의 구성원이 둘에 국한되어야 하는

운용자-변항연쇄도 아니다. 이 연쇄를 논리형태에서 합법적인 대상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운용자-변항 구문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때 주목할 것은 도출과정에서 *표시가 되었던 중간흔적을 삭제하게 되면, 흔적과 더불어 *표시도 제거된다는 점이다.

이제 연속 순환 부가어이동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연쇄의 모든 구성원이 비논항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이 연쇄는 논리형태 표상에서 적법한 요소인 부가어연쇄이다. 따라서 (한 번에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하여) 어떤 중간흔적이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도출의 경제성에 의거하여 제거될 수 없다. 그 흔적들은 논리형태 표상에 남아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합법적인 대상(legitimate object)이지만 적격(well-formed)하지 못하다. 장거리 이동과 관련하여 논항-부가어 비대칭성에 대한 Chomsky의 이러한 설명은, 공범주원리를 위반하였을 때 *표시를 도출의 단계에서 부여한다는 점에서 도출적(derivational)이지만, 또한 그 위반이 치유(remedied)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상적(representational)이다. 어떠한 부적격 흔적도 논리형태 표상에서 남아있지 않으면 비록 도출과정(on-line)에서는 공범주원리 위반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은 공범주원리 위반이 아니다.

2.2 하위인접조건(Subjacency Condition) 위반의 구제

일반적으로 하위인접(Subjacency)조건의 성격은 도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예를 들어, 장거리 이동의 경우 논항이동조차 어느 정도는 문법성의 악화(degradation)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위인접조건 위반은 도출과정에서 결정되며 논리형태 자체는 하위인접조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범주원리 위반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표상에 근거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Chomsky and Lasnik (1993)의 논의에 필적할 만한 현상이 하위인접조건과 관련하여 다루어진 적이 있다고 Lasnik (to appear a)은 지적한다.

Ross (1969)는 슬루싱(Slicing) 구문을 분석하면서 생략(ellipsis)은 삭제(deletion)로 설명되어야 하며 삭제가 섬제약(island constraint) 위반효과를 완화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슬루싱은 적절한 담화문맥이 주어졌을 때 내포 의문문에서 종종 발견되는 생략현상이다:

(7) Mary hired someone. Tell me who ~~Mary hired~~.

위의 예문에서는 의문사구 이동이 하나의 절 내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슬루싱은 의문사구가 장거리 이동을 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 (8) I heard that Mary hired someone. Tell me who ~~you heard that~~
~~Mary hired~~.

주목할만한 사실은 장거리 이동이 섬(island)을 벗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법성의 악화(degradation)가 슬루싱 구문에서는 상당히 완화된다는 점이다:

- (9) I resigned because Mary hired someone.
*Tell me who you resigned because Mary hired.
?Tell me who ~~you resigned because Mary hired~~.

이러한 사실은 슬루싱이 다른 섬제약 위반현상에 적용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관측된다:

- (10) Irv and someone were dancing together, but
*I don't know who Irv and were dancing together.
??I don't know who.
- (11) She kissed a man who bit one of my friends, but
*Tom doesn't realize which one of my friends she kissed a man
who bit.
??Tom doesn't realize which one of my friends.
- (12) They asked where we bought one of our cars, but
*I don't remember which one they asked where we bought.
I don't remember which one.
- (13) That he'll hire someone is possible, but
*I won't divulge who that he'll fire is possible.
??I won't divulge who.

만약 슬루싱이 내포 의문문(embedded interrogative question)에서 WH-이동과 IP 삭제에 의해 도출되는 현상이라면, Levin (1982)과 Chung,

Ladusaw, and McCloskey (1995)가 지적했듯이, 왜 위의 예문들에서 슬루싱이 문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난다.

Ross가 주장하는 대로 슬루싱이 삭제현상-Chomsky는 일반적으로 생략은 삭제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해왔다-이라고 가정해 보자. (9-13)은 하위인접조건이 도출과정에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위의 예문들에서 생략구문과 비생략구문은 통사도출과정상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실 Ross (1969: 276-277)는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어떤 절점(node)이 섬 밖으로 이동을 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생성된다. 그러나 그 섬을 형성하는 절점이 표층구조(Surface Structure)에서 보이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 비문법성은 완화된다.

Lasnik (to appear a)은 이러한 Ross의 제안을 최소주의의 입장에서 재해석한다: 공범주원리 위반처럼 하위인접조건 위반 시에도 구구조 내의 어떤 특수한 위치-Lasnik은 공범주원리 위반과 하위인접조건 위반을 구별하기 위해 흔적보다는 섬을 형성하는 구성성분-에 *표시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 섬(혹은 섬을 포함하는 구성성분)의 삭제는 *표시가 제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약 삭제가 음성형태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면, 하위인접조건 위반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표상은 음성형태라는 결론에 잠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요약하여, 공범주원리와 하위인접조건에 대하여 도출과정 내에서의 위반은 표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운용에 의해 전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화될 수 있다는 논증을 살펴보았다.

3. 생략(Ellipsis)

이제 보다 궁극적인 문제로 넘어가서 도대체 이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최소주의가 어떤 답을 제공하는 지를 살펴보자. Chomsky (1995)는 개념적(conceptual)인 측면에서, 또한 다소 경험적인 측면에서, 모든 이동은 형태론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점검되어야 마땅한 형식자질이 존재하며 이동은 점검이 요구하는 형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Chomsky는 같은 조건이면 비가시이동이 가시이동보다 우선한다

-Chomsky는 이것을 지연원리(Procrastinate)라 부른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동이 가시적일 때 그 이동은 어떤 특별한 요건에 의해 초기에 (early) 일어나야 한다. Chomsky (1993, 1994, 1995)는 이 요건을 ‘강자질 (strong feature)’이라고 부르며, 강자질이 어떤 식으로 가시이동을 유발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이한 이론을 제공한다:

- (14)A. Chomsky (1993): 가시통사부에서 점검되지 않은 강자질은 음성 형태 표상에서 도출을 파탄으로 이끈다. (A strong feature that is not checked in overt syntax causes a derivation to crash at PF.)
- B. Chomsky (1994): 가시통사부에서 점검(그리고 제거)되지 않은 강자질은 논리형태 표상에서 도출을 파탄으로 이끈다. (A strong feature that is not checked (and eliminated) in overt syntax causes a derivation to crash at LF.)
- C. Chomsky (1995): 강자질은 구구조 속으로 도입되는 (거의) 즉시 제거되어야만한다. (A strong feature must be eliminated (almost) immediately upon its introduction into the phrase marker.)

위의 이론들은 모두 문법에 대한 최소주의 모형(minimalist model)에 기초해서 제안된 것이다. 처음 두 이론은 표상에 기초한 것이며 세 번째 이론은 도출에 기초한 것이다. 이들 세 이론의 이론 내적, 경험적 차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차치하고 (Lasnik 1999b를 참조) 아래에서는 몇몇 생각현상에 국한하여 (14)의 이론들이 어떤 예측을 하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

3.1 유사공백화(Pseudogapping)

Chomsky (1995)의 도출적 접근방식은 가시이동을 유발하는 강자질이 항상 표적(target, 유인자 자질)의 자질이어서야 함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동하는 요소에 강자질이 있다면 그 요소가 일반화 변형(generalized transformation)에 의해 더 큰 구조에 내포되기 전에는 강자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자질이 표적이 아니라 이동요소에 존재해야 한다는 증거는 강자질 제거에 대한 도출적 접근방식에 반례

(counterexample)가 될 수 있다. Lasnik (1995c, 1999a)은 유사공백화가 바로 그런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15)는 Levin (1978)에 의해 제시된 유사공백화의 예들이다.

- (15)a. If you don't believe me, you will \emptyset the weatherman
- b. I rolled up a newspaper, and Lynn did \emptyset a magazine
- c. Kathy likes astronomy, but she doesn't \emptyset meteorology

많은 경우에 유사공백화는 동사만을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많은 요소가 생략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16a)의 경우는 동사와 소절 (small clause)의 술어가 (16b)는 동사와 이중목적어구문(double object construction)의 둘째 목적어(second object)가 같이 생략된 예들이다.

- (16)a. The DA proved Jones guilty, and the Assistant DA will ~~prove~~ Smith ~~guilty~~
- b. ?John gave Bill a lot of money, and Mary will ~~give~~ Susan ~~a lot of money~~

Jayaseelan (1990)은 생략이 비구성성분(non-constituent)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부하면서, 유사공백화를 증명사구 이동(Heavy NP Shift=HNPS)에 의해 잔여명사구(remnant NP)가 동사구 밖으로 이동한 후 동사구가 삭제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Lasnik (1995c, 1999a)은 Jayaseelan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지만 잔여구(remnant phrase)가 움직이는 요인은 증명사구 이동이 아니라 목적어 일치소 지정어(Spec of Agro)로 향하는 이동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론을 검토해보자.

Chomsky (1991)이래 표준적(standard) 최소주의 가정에 따르면, 목적어 일치소 지정어로의 명사구 인상은 논리형태부에서 일어나는 비가시 이동이다. 따라서 생략은 구성성분(constituent)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Jayaseelan과 Lasnik의 가정에 따르면, 생략은 음성형태부의 삭제보다는 논리형태부의 복사(copying)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Chomsky (1995)가 주장하고 Lasnik (1995a, b)이 옹호한 자질이동이론(theory of feature movement)에 따르면, 필요한 구조는 비가시 통사부에서조차 생성될 수 없다. 이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이동은 형식자질(formal feature)이 점검(checking)될 필요가

있을 때만 유발된다. 이동이 (강자질에 의해 유발되어) 가시적일 때, 음성 형태는 일종의 선도(pied-piping)를 통해 구성성분 전체가 이동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동이 비가시적일 때, 음성형태부의 요구조건은 무의미해지고 경제성 원리는 이동이 필요한 최소의 요소(즉, 형식자질)에 한정되기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목적어 일치소 지정어로 목적어 명사구의 형식자질만이 이동한다고 할 때, 어떻게 생략 허가형상이 도출될 수 있는지의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관점에서 Lasnik은 이동이 생략 허가형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만약 관련된 이동이 가시이동이라면, 생략이 논리형태부 복사로 분석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다시 말해서, 생략 허가형상이 문자화(Spell-Out) 이전에 생성된다면 생략은 논리형태부 복사뿐만 아니라 음성형태부 삭제로도 분석이 가능해진다.

Chomsky (1991, 1993)와 Chomsky and Lasnik (1993)등의 초기 최소주의 문헌들은 목적어 인상이 가시이동이 아니라 비가시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Koizumi (1995)는 Johnson (1991)의 제안을 발전시켜 영어의 목적어이동은 강자질에 의해 유인되는 가시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Lasnik (1995c)은 같은 맥락에서 가시 목적어이동에 관계하는 강자질이 일치소(Agr)에 존재하는 EPP 자질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자질은 Chomsky (1981)의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시 주어이동을 유인하는 자질이기도 하다. 영어의 어순이 O-V가 아니라 V-O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목적어가 동사 밖으로 가시이동을 하면 동사는 목적어의 표적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시인상되어야 한다. 다음에서 보여지듯이 Koizumi의 동사구 분리 가설(Split VP hypothesis)에 따르면 동사는 목적어 일치소(Agro)를 경유하여 상위의 껍질(shell) 동사위치로 이동한다:

(17) You will believe Bob

(18) [_{AgrsP} You₁ Agrs [_{TP} will [_{VP1} t₁ believe₂
[_{AgroP} Bob₃ Agro [_{VP2} t₂ t₃]]]]]]

이제 유사공백화 예를 살펴보자:

(19) You might not believe me but you will Bob

*Bob*이 목적어 일치소 지정어로 가시이동을 하고 *believe*는 제자리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잔여 동사구(즉 하위 동사구)가 삭제되면 (19)가 생성된다. 관련된 구조는 다음과 같다:

(20)[_{Ag_{rs}P} You₁ Ag_{rs} [_{TP} will [_{VP₁} t₁ V
[_{Ag_oP} Bob₂ Ag_{ro} [~~v_{rp}~~ believe t₂]]]]]]]]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사가 왜 유사공백화 구문에서는 가시이동을 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비생략구문에서는 동사가 반드시 가시인상되어야 한다:²

(21)*You will Bob believe

앞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여기서도 강자질이 관계되어 있음이 틀림없다. Lasnik은 도출의 합치(convergence)를 위해 상이한 두 가지 도출을 상정한다. 첫째, (18)에서는 관련된 강자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동사가 가시이동하였다. 둘째, (20)에서 동사는 자신을 포함하는 동사구 삭제에 의해 사라졌다. 동사의 가시인상을 유발하는 강자질이 표적보다는 이동하는 동사자체에 있다고 가정하는 이러한 식의 논의는 강자질에 대한 Chomsky (1993)의 음성형태 접근방식 하에서 쉽게 수용될 수 있다고 Lasnik은 주장한다. (20)을 다음에서 다시 고려해보자:

(22)[_{Ag_{rs}P} You₁ Ag_{rs} [_{TP} will [_{VP₁} t₁ V-[F]
[_{Ag_oP} Bob₂ Ag_{ro} [~~v_{rp}~~ believe -[strong F] t₂]]]]]]]]

*believe*가 이동을 하지 않고 또한 다른 관련된 연산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가시동사부에서 점검되지 않은 *believe*의 강자질은 (22)를 음성형태에서 파탄으로 이끈다. 그러나 *believe*를 포함하는 하위 동사구가 음성형태부에서

2. 이러한 의문은 통사부에서 동사가 가시인상된다는 전제하에 제기되는 것이다. 만약 Chomsky가 최근에 제안하는 것처럼 동사이동은 음성형태부에서 수행된다고 가정하면 동사가 생략구문에서는 가시이동을 하지 않는데 비생략구문에서는 왜 반드시 가시이동을 해야 하느냐는 의문은 더이상 의미심장하지 않다(Kim 1999를 참조).

삭제된다면 분명 그 강자질은 음성형태 파탄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강자질(혹은 강자질을 포함하는 범주)은 음성형태상에서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다. Lasnik은 이러한 결과를 강자질에 대한 Chomsky (1994)의 논리형태 파탄이론으로는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공백화 구문이 강자질에 대한 Chomsky의 두 표상적(representational) 접근방식 중 음성형태 파탄이론(Chomsky 1993)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Lasnik (1999a)은 Lasnik (1995c)과 달리 위의 사실을 Chomsky (1995)의 강자질에 대한 도출(derivational)이론으로 포착하려는 시도를 한다. 다음은 Chomsky (1995: 262)에서 인용한 것이다:

대개의 경우 - 아마도 완전히 - 선도(pied-piping)를 요구하는 것은 음성형태부이다. 분리된 자질이나 단어의 흩어진 부분들은 음성형태부의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도출은 취소된다. 혹은 음성형태까지 도출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해석원리를 위반하여 관련된 요소들은 발음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접근 하에서 가시이동은 보다 복잡한 연산(operation)을 거치게 된다 (Chomsky 1995: 265):

자질 F에 적용된 Move는 아마도 두개의 도출연쇄(derivative chains)를 생성해낸다. 하나는 형식자질과 이것의 흔적의 집합으로 구성된 연쇄, $CH_{FF} = (FF[F], t_{FF[F]})$ 이다. 다른 하나는 일반화된 선도에 의해 이동된 범주 a와 F를 포함하는 어휘항목으로 구성된 연쇄, $CH_{CAT} = (a, t_a)$ 이다. CH_{FF} 는 항상 생성되지만, CH_{CAT} 는 합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생성된다.

Lasnik (to appear a)은 Chomsky (1995)의 이러한 논의를 인용하면서 선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특별히 음성형태부에서 어떤 위반이 야기된다고 지적한다. Chomsky (1995: 264)는 음운론적 요건이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는 가시이동도 선도 없이 가능하다고 암시한다. 이제 Lasnik (1999a, b)을 따라, Chomsky (1995)의 도출이론에 입각하여, Lasnik (1995c)의 유사공백화에 관한 논의를 검토해보자. 이전 논의에 대한 대안은 음성형태 파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삭제의 개념을 수용하되 파탄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이다. 가시 동사인상을 유발하는 자질은 상위 동사의 강자질일 수도 있다. 일단 하위 어휘동사의 상용자질(matching feature)이 하위 동사 밖으로 유인(attracted)되면 하위 동사는 결함(defective)범주가 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여지듯이 선도가 일어나거나 하위동사를 포함하는 범주를 삭제하면 음성형태 파탄을 피할 수 있다:

(23)[_{AgrsP} You₁ Agrs [_{TP} will [_{VPI} t₁ V-[strong F]
 [_{AgrOP} Bob₂ Agro [~~v₂ believe-[F] t₂]]]]]]~~

그러면 강자질에 대한 도출이론 내에서도 유사공백화 구문에서 나타나는 구제효과를 포착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강자질에 대한 음성형태 파탄이론에 근거하여 유사공백화 현상을 설명했던 것을 도출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고 Lasnik (1999b)은 주장한다. 이는 도출이론에 대한 Chomsky (1995)의 이론 내적 논증이 옳다면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도출이론에 근거한 유사공백화 현상의 설명 역시 궁극적으로는 음성형태 표상의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강자질은 이동범주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즉 도출이론의 기본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경험적 증거를 논의해보자. Bošković (1998)는 슬라빅(Slavic) 언어의 하나인 서보-크로시안(Serbo-Croatian)의 다중 의문사 전치(multiple WH-fronting)를 분석하면서 서보-크로시안의 의문사구들은 강한 초점자질(strong focus feature)을 갖고 있는데 이 때문에 모든 의문사구가 가시이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 (24)a. Ko šta gdje kupuje?
 who what where buys
 'Who buys what where?'
 b. *Ko kupuje šta gdje?
 c. *Ko šta kupuje gdje?
 d. *Ko gdje kupuje šta?

관련된 자질의 성격은 논의로 하자.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의문사구가 가시이동을 해야하며, 따라서 그 이동을 유발하는 강자질은 이동하는 의문사구

들 자체에 내재되어야 한다는 Bošković의 기본가정이 옳다는 점이다. 만약 그 강자질이 의문사구들이 이동해야 하는 위치(즉 표적)의 핵(head)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24)에서 하나 혹은 두개의 의문사구만 이동을 했을 경우 왜 비문이 되는지 설명할 길이 없게 된다. 더 나아가서 만약 의문사구들이 강자질을 갖고 있고 이것이 상위 핵에 의해 점검되어야 한다면 강자질은 구구조 속으로 삽입되는 즉시 점검되어야 한다는 Chomsky (1995)의 주장과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Lasnik (to appear a)은 강자질에 대한 Chomsky (1995)의 엄밀 도출이론(strictly derivational theory)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린다.

3.2 슬루싱(Slucing)

Ross (1969)에 의해 처음 연구된 생략현상인 슬루싱도 유사공백화가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패러다임(paradigm)을 보인다. Saito and Murasugi (1990)와 Lobeck (1990)에 따르면 슬루싱은 WH-이동을 후행하는 IP 생략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전형적인 예이다:

- (25) 화자 A: Mary will see someone.
 화자 B: I wonder who ~~Mary will see~~.

Ross는 슬루싱을 내포 의문문(embedded question)에만 국한하여 분석하였으나 슬루싱은 Lasnik (1999a, b)이 관측하는 바와 같이 상위 의문문(matrix question)에서도 발견된다:

- (26) 화자 A: Mary will see someone.
 화자 B: Who ~~Mary will see~~?

(26)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7) [_{CP} who₁ C [_{IP} ~~Mary will~~ [_{VP} ~~see t_i~~]]]

생략은 최대투사(maximal projection)에만 적용된다는 일반적인 가정과 슬루싱이 IP 생략이라는 분석을 받아들이면 (26)의 입력은 (28)이 아니라

(27)이어야 한다.

(28)Who will Mary see

(28)이 입력문이 되기 위해서는 생략된 요소가 IP가 아니라 C'이어야 한다. 그러면 유사공백화에서 일어났던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슬루싱이 상위 의문문에 적용될 때의 입력문은 I-to-C 인상을 허용하지 않는데 왜 슬루싱이 일어나지 않은 그 입력문은 비문이 되는가?

(29)*Who Mary will see

상위 의문문인 (28)에서 I의 가시인상을 유발하는 강자질은 분명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26)에서 그 강자질은 가시통사부에서 점검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유사공백화 구문에서 어휘동사는 일반적으로 상위의 겹질 동사위치로 이동을 해야 하지만 그 어휘동사를 포함하는 동사구가 삭제되면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상위 의문문 슬루싱의 경우에도 I-to-C 인상은 일반적으로 의무적이지만 IP가 생략되면 일어나지 않는다. 상위 의문문에서 I의 가시인상을 유발하는 강자질은 C의 자질일 수도 있고 I의 자질일 수도 있다. 만약 그 강자질이 I의 자질이라면 그리고 생략이 음성형태 삭제 현상이라면 (26)은 강자질 점검에 대한 음성형태 파탄이론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이제 강자질이 표시된 (27)을 다음에서 다시 살펴보자:

(30)_{CP} who_i C-[F] [_{IP} ~~Mary will~~-[strong F] [_{VP} see t_i]]

I가 이동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운용(operation)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I의 강자질이 점검되지 않은 관계로 (29)는 음성형태에서 파탄을 맞이한다. 그런데 IP가 생략되면 강자질의 점검여부와 관계없이 그 강자질은 음성형태에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26)은 정문이 된다.

3.3 공백화(Gapping)

Kuno (1976)와 Sag (1976)는 다음과 같은 공백화 구문이 가능하다고 말

한다:

- (31)a. Two days ago John took Mary to Dinner, and this afternoon
~~John took Mary~~ to the movies
 b. On Monday I bought a car, and on Tuesday I ~~bought~~ a
 motorcycle

위의 예문과 관련하여 (적어도)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 주어가 공백화 되었다는 사실과, 둘째, 오른쪽 잔여구로 남아있는 요소들은 보통 VP 나 TP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의문점은 공백화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 다소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공백화도 생략현상의 일종이고, 우향이동(rightward movement)과 TP 삭제의 복합연산으로 분석된다고 가정하자 (Kim 1997 참조). 음성형태에서 삭제가 일어나기 전에 우측 잔여구가 우향이동에 의해서 생략위치(ellipsis site) 밖으로 이동했다고 가정하면 가시통사부에서 보통 VP나 TP 내에 남아있는 우측요소들이 어떻게 공백화 잔여구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주어가 문법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VP 내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소 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VP 내의 주어를 AgrsP(혹은 TP, 여기서는 AgrsP로 가정함)의 지정어로 인상시키는 강자질([+EPP] 혹은 [+D])이 표적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이 경우 표적의 강자질이 점검되지 않았기 때문에 (31)의 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제 [+EPP]의 강자질이 표적보다는 동사구 내의 주어에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Lasnik (1995c, 1999a)의 논의를 적용하면, 이 경우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그 강자질을 제거 할 수 있다. 첫째 방법은 동사구 내의 주어를 Agrs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시켜 강자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생략지점(여기서는 TP로 가정함) 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음성형태 삭제에 의해 제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1a)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32)... and [AgrsP this afternoon [AgrsP [+EPP] [FP [~~TP~~ [~~VP~~ John took
 [F] [strong F]
 Mary t_i]VP] [+a] to the movies]_i]aP]AgrsP]AgrsP

문장 부사는 AgrsP에 부가(adjoin)되어 생성되었다고 가정하자. (32)에서

좌측 잔여구는 처음부터 생략지점(여기서는 TP) 밖에서 생성되었다. 우측 잔여구는 우향이동에 의해 생략지점 밖으로 이동했다. 음성형태에서 TP가 삭제되면 동사구 내의 주어에 남아있던 점검되지 않은 강자질은 주어와 함께 제거되어 (31a)는 음성형태 파탄을 유발하지 않는다.

4. 결론

생략과 관련된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유사공백화, 슬루싱, 공백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화가 가능하다:

- (33)a. 생략은 음성형태 삭제현상이다.
- b. 점검되지 않은 강자질은 음성형태 파탄을 유발한다.
- c. 강자질이 표적이 아니라 이동하는 요소에 있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가시이동이 의무적인 구문에서 이동하는 요소가 생략위치에 놓여 있으면 그 가시이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생성문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논리형태나 음성형태가 문법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중반의 생성문법학자들은 논리형태를 변형도출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구절구조(T-marker)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후에 1970년대 초반의 확대표준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에서는 의미해석(semantic interpretation)의 입력이 기저구조(Deep Structure)와 표층구조(Surface Structure)의 두 표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당시 확대표준이론을 약간 변용한 다양한 견해들이 팽배하였는데, 그 중에는 Belletti and Rizzi (1988) 식의 대용어(anaphor)에 대한 도출적 접근과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Jackendoff (1972)는 해석규칙이 통사순환(syntactic cycle) 각각의 끝에서만 적용된다는 대용어이론을 제안하였다. 또한 Lasnik (1972)은 부정어 영역(negation scope)에 대한 순환적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Lasnik (1976)은 이러한 논의를 다른 운용자(operator)들의 영역(scope)에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유사한 논의가 음성형태와 관련해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Bresnan (1971)은 영어의 문장 강세(stress)를 할당하는 규칙은 표층구조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사순환 각각의 끝에서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분석들은 궁극적으로 도출

적이다.

최근 이러한 분석들을 더욱 발전시킨 연구들이 있다. Epstein (to appear)과 Uriagereka (to appear)등은 모든 해석 정보(interpretive information)가 통사도출 중 온라인(on-line)으로 제공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논리형태 자체가 표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Chomsky (1955)의 주장을 상기시킨다. Epstein의 주장에 따르면 매번 통사 운용이 적용될 때마다 의미해석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구조적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³ 이러한 접근은 재구성(reconstruction) 등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듯 하다(Lasnik to appear a를 참조). 하지만 부가어-논항 비대칭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2절에서 보여졌듯이 부가어-논항 비대칭성은 도출의 초기 단계에서 존재했던 어떤 특성을 업제하는데 어떤 표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Lasnik (to appear a)은 언어현상을 분석하는데 도출(derivation)과 표상(representation) 양자를 모두 수용하는 문법모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본 논문은 Lasnik의 이러한 결론과 관련된 자료와 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참고문헌

- Belletti, Adriana, and Luigi Rizzi. 1988. Psych-verbs and θ -theor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6, 291-352.
- Bošković, Željko. 1998. Multiple wh-fronting and economy of derivation. In the Proceedings of the 16th WCCFL, 49-63.
- Bresnan, Joan. W. 1971. Sentence stress and syntactic transformations. *Language* 47, 257-281.
- Chomsky, Noam. 1955. 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Manuscript, Harvard University and MIT.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oam. 1986. *Barriers*.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oam. 1991.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417-454.

3. Epstein (to appear)은 음성형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구조적 정보는 음성형태 해석에도 이용이 가능할 듯 하다.

- Chomsky, Noam.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enneth Hale, and Samuel Jay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1-54.
- Chomsky, Noam.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5.
- Chomsky, Noam. 1995. Categories and transformations. In *The minimalist program*, 219-394.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oam, and Howard Lasnik. 1993. The theory of principles and parameters.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506-569. Berlin: Walter de Gruyter.
- Chung, Sandra, William A. Laudusaw, and James McCloskey. 1995. Sluicing and logical form. *Natural Language Semantics* 3, 239-282.
- Epstein, Samuel David. to appear. Unprincipled syntax and the derivation of syntactic relations. *Working minimalism*.
- Grodzinsky, Yosef, and Lisa Finkel. 1998. The neurology of empty categories: aphasics' failure to detect ungrammaticalit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0, 281-292.
- Jackendoff, Ray.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 Jayaseelan, Karattuparambil A. 1990. Incomplete VP deletion and gapping. *Linguistic Analysis* 20, 64-81.
- Johnson, Kyle. 1991. Object position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9, 577-636.
- Kim, Jeong-Seok. 1997. *Syntactic focus movement and ellipsis: A minimalist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Kim, Jeong-Seok. 1999. The role of [+focus] in pseudogapping. Manuscript.
- Koizumi, Masatoshi. 1995. *Phrase structure in minimalist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 Kuno, Susumu. 1976. Gapping: A functional analysis. *Linguistic Inquiry* 7, 300-318.
- Lasnik, Howard. 1972. *Analysis of negation in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MIT.
- Lasnik, Howard. 1976. Remarks on coreference. *Linguistic Analysis* 2, 1-22.
- Lasnik, Howard. 1995a. Last resort. In Shosuke Haraguchi, and Michio Funaki, eds. *Minimalism and linguistic theory*, 1-32. Tokyo: Hituzi Syobo.
- Lasnik, Howard. 1995b. Last resort and attract-F. In *Proceedings of the sixth Annual Meeting of the FLSM*, 62-81.
- Lasnik, Howard. 1995c. A note on pseudogapping. In *Papers on minimalist*

- syntax.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7*, 143-163.
- Lasnik, Howard. 1998. Some reconstruction riddles. In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5*(1), 83-98.
- Lasnik, Howard. 1999a. Pseudogapping puzzles. In *Fragments: Studies on ellipsis and gapping*, 141-17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snik, Howard. 1999b. On feature strength: Three minimalist approaches to overt movement. *Linguistic Inquiry 30*, 197-217.
- Lasnik, Howard. to appear a.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modern transformational syntax.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yntactic theory*.
- Lasnik, Howard. to appear b. Chains of arguments. *Working minimalism*.
- Lasnik, Howard, and Mamoru Saito. 1984. On the nature of proper government. *Linguistic Inquiry 15*, 235-289.
- Levin, Lori. 1982. Sluicing: A lexical interpretation procedure. In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590-654.
- Levin, Nancy 1978. Some identity-of-sense deletions puzzle me. Do they you. In Proceedings of the Fourteenth Annu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229-240.
- Lobeck, Anne. 1990. Functional heads as proper governors. In Proceedings of the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20*, 348-362.
- Ross, John Robert. 1969. Guess who?. In Proceedings of the Fifth Annu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252-286.
- Sag, Ivan. 1976. *Deletion and logical form*. Doctoral Dissertation, MIT.
- Saito, Mamoru, and Keiko Murasugi. 1990. N'-deletion in Japanese. *University of Connecticu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3*, 87-107.
- Uriagereka, Juan. to appear. Multiple Spell-Out. *Working minimalism*.

136-075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47-13 (24/2)

E-mail: uconnkim@nlprep.sogang.ac.kr